

그의 애절한 노래에서 행복의 비밀 찾다

김광석과 철학하기

김광석 지음

“근대 광석인 왜 그리 일찍 죽었다니? 우리 광석을 위해 한 잔만 하자.”

지난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JSA’(감독 박찬욱)에서 북한 오경필 중사(송강호 역)는 가객(歌客) 김광석(1964~1996)의 이른 죽음을 아쉬워한다. 지난 6일로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됐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신간 '김광석과 철학하기'는 가객(歌客) 김광석의 대표곡 12곡을 칸트 등 철학자들의 시선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서 가장 아픈 자리를 어루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서울 종로구 학전 블루 소극장에서 열린 '김광석 노래부르기 2016' 모습.

저자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 대표곡 12곡을 고대·근대·현대 대표하는 12명의 철학자와 결부시켜 행복을 위한 철학을 이야기한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에서 죽음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하이데거를 만나고, ‘사랑했지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흠을 만난다. 또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혁명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마르크스를 만나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에서 자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헤겔을 만난다.

그의 애절한 노래는 삶의 아픔과 슬픔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그것을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화두도 대중들에게 함께 던져준다.

“한결같은 망각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좋소...” 하고 노래하는 ‘나무’는 아테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쾌락의 철학’과 연계해 들여다본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카르페 디엠’(Carpe Diem=현재를 즐겨라)과 일맥상통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김광석의 노래와 나의 철학이, 당신이 마음 깊숙이 감추

였을지도 모르는 슬픔을 쓰다듬어 다독여 스스로 치유하고, 당신의 삶이나 슬픔의 모양에 맞는 행복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작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유한다.

철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김광석의 노래는 새롭게 다가온다. 책을 덮을 때쯤 김광석의 노래 CD를 다시 찾아 가사말을 음미하며 천천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사·1만38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다=우리 시대 대표적 다독가이자 인문학 저자인 장석주 작가가 그동안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해 해온 이야기를 엮었다. 이 책에는 40여 년간 책 읽고 글 써오며 인생의 고비마다 가만히 손 내밀어 주었던 책과의 깊은 인연이 담겨 있다. 책읽기의 의미부터 독서목록 만드는 법, 독서방법 등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한다.

〈샘터사·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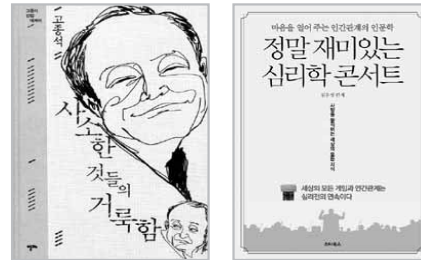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감정이 우리의 사회적 삶과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또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저지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한다. 박정신과 정수남 두 저자들은 감정사회학, 특히 거시적 감정사회학에 주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사회학이 중시해온 합리성의 패러다임만으로 해명될 수 없는 여백을 매우고자 했다. 수록된 9편의 논문에서 저자들은 ‘공포’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감정동학을 들여다본다.

〈한길사·2만4000원〉

▲사소한 것들의 거룩함=작가이자 저널리스트 고종석의 선집이 완간됐다. ‘플루트의 끝자락’(소설)부터 시작해 ‘언어의 무지개’(언어), ‘정치의 무늬’(시사), ‘문학이라는 놀이’(문학)를 거쳐, ‘사소한 것들의 거룩함’(에세이)으로 2년 만에 완간한 것이다. 책에는 54편의 에세이가 담겨 있다. 사랑, 언어, 여자, 도시, 영화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모두 4부 구성 아래 정연하게 갈무리했다. 선집을 마무리하는 책답게 지적인 섬세함과 유려한 언어감각, 빼어난 지식교양이 두루 갖춰져 있다.

〈알마·1만9800원〉

▲정말 재미있는 심리학 콘서트=보다 나은 관계와 자기이해를 도와 줄 심리학을



제시한다. 첫번째 장에서는 겉모습과 말, 행동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살피고 두번째 장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 감동을 전하는 법을 다룬다. 또 세번째 장은 인간 관계의 구조를 설명하고 친구와 연인을 만드는 기술처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마지막에는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짓말의 속성과 효과 등을 살핀다.

〈스타북스·1만5000원〉

▲셜로키언=‘이미테이션 게임’ 시나리오 한 편으로 아카데미 각색상 등 수십 개 상을 휩쓴 그레이엄 무어의 소설 대표작. ‘셜록 홈즈’라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주인공이자 매력적 캐릭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매력을 이야기꾼다운 필력으로 녹여낸 작품이다. 1900년대의 아서 코난 도일과 2010년대의 셜로키언 해럴드 화이트가 각기 살인 사건에 휘말리며 시작되는 ‘셜로키언’은 치밀한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팩트에 정교하고도 화려한 작가의 상상력이 조합되어 독자 에게 진짜배기 이야기의 힘을 선보인다.

〈비채·1만4000원〉

오윤과 정희성, 드가와 황지우 ... 그림과 시의 오묘한 조화

신현림의 미술관에서 읽은 시

신현림 지음

신현림을 세상에 처음 알린 건 시집 ‘세기말 블루스’,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였다. 이후 사진을 정식으로 전공하며 사진작가로 변신한 그녀의 사진 작품 역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시와 그림 이야기는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키워온 지양분이라고 말해온 것들이다. “두려움과 불안이 닥쳐왔을 때 쓰러지지 않게 일으켜 세운 게 바로 그림과 시였다”는 말이다. ‘서양화와 지방생에서



디자인과 입학과 지되, 페퍼와 심각한 불면증을 앓으며 국문학과 입학생이 된’ 그녀는 닥치는 대로 예술 잡지를 읽었고, 그림을 보러 다녔고, 그 모든 건 시를 쓰는 토대가 됐다.

신작 ‘신현림의 미술관에서 읽은 시’는 그녀의 젊은 날을 사로 잡았던 그림과 시에 대한 이야기다. 책에 등장하는 그림과 시는 모두 60여편. ‘살-누구나 자기 몫의 인생이 있다’, ‘절망-울자, 때로는 너와 나를 위해’, ‘사랑-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고독-고독이라는 아름다운 재료’, ‘위로-위로로는 쉽지 않다’ 등 5개 테마로 나눠 실었다.

대화를 주고 받듯 연결된 각각의 그림과 시, 그리고 신현림의 길지 않은 코멘트는 딱 어우러지며 마음을 울린다.

첫 작품부터 강렬하다. 오윤의 ‘칼의 노래’와 그의 친구인 정희성 시인이 쓴 추모시 ‘판화가 오윤을 생각하며’가 함께 한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는 구절로 유명한 황지우의 ‘너를 사랑

하는 동안’과 에드가 드가의 ‘기다림’을 통해서만 기다림이라는 건, 아직 희망 있음의 증거라고 설명한다.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유명 시뿐만 아니라 모네의 그림 ‘수련 연못’을 본 후 ‘경멸, 오! 고마운 경멸’을 보내 준 도종환 시인의 작품처럼 신작시도 여러편이다.

무엇보다 임경식·최지연·박소란 등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게 큰 즐거움이다.

서문에서 그녀가 전한 고데의 말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노래를 듣고, 좋은 시를 읽고, 아름다운 그림을 봐야 한다.” 가슴에 담아둘 말이다.

〈서해문집·1만4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책

▲구름 위의 지휘관, 파일럿=파일럿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등 30년이 넘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현직 파일럿이,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파일럿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준다.

〈리움·1만2500원〉

▲성교육을 부탁해=어린이들이 몸의 변화를 당당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에 대해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돕고자 펴낸 책.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명쾌하게 성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숨기기보다는 진솔하고 정확하게 지식을 알려준다.

〈풀과바람·1만1000원〉

▲궁금해요. 장영실=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장영실’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위인동화. 책에서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노비로 태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였던 장영실의 이야기를 담았다.

〈풀빛·9500원〉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여자 주인공이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남녀간의 다름과 개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책. 이야기를 읽다 보면 편견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머스트비·9800원〉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중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